

자궁경부암 1차 선별검사로서 고위험군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

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부인종양학회 공식입장

자궁경부암 1차 선별검사로서 고위험군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 도입에 대하여 누적된 분자생물학 연구와 임상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부인종양학회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.

- 고위험군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는 자궁경부 세포검사에 비하여 높은 고등급 자궁경부상피내종양 검출 민감도를 가지며, 더 많은 고등급 자궁경부상피내종양 환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해준다.
- 고위험군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는 현존 자궁경부 세포검사를 대체하는 1차 선별검사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. 선별검사 간격은 3년 이상 5년 미만을 권고한다.
- 고위험군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이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될 확률이 아주 낮은 25세 이전 여성에서는 질 확대경 검사를 포함한 과잉진료에 대한 우려로 고위험군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를 통한 1차 선별검사를 권고하지 않는다.
- 자궁경부암 1차 선별검사 방법으로 고위험군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, 적합한 분석법, 시작 연령 및 시행 간격 등의 결정을 위한 비교효과 연구 및 비용효과 내국인 대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

※ 본 입장문은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부인종양학회의 공식적인 학술적 의견으로, 실제 진료행위의 결정에는 다양한 임상적 요소를 감안한 의사의 판단이 우선합니다.

대한산부인과학회 - 대한부인종양학회
'고위험군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 관련 입장문 작성 위원회'



대한산부인과학회
Korean Society of Obstetrics and Gynecology



대한부인종양학회
Korean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y